

극작가 박재성의 전기적 정보와 오독의 문제*

민 병 욱**

차 례

- | | |
|-----------------|-----------------|
| 1. 문제의 제기 | 3) 학창 생활과 연극 활동 |
| 2. 전기적 정보의 쟁점 | 4) 참여 단체와 회원 정보 |
| 1) 전기적 정보의 출발점 | 3. 결론 |
| 2) 출생과 생몰연대의 문제 | |

국문초록

본고는 구술이나 회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극작가 박재성의 생애와 연극 활동에 관한 전기적 정보를 살펴보았다. 이에 본고는 그의 전기적 정보, 특히 연극 활동에 관한 정보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생몰 연도는 통영중학교 국어교사 시절 제자들의 회고담에 근거하여 1915년과 1947년으로 본다.

둘째, 일본대학과 법정대학의 동문 명단에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회고담의 구술자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가 일본대학교 예술과로 유학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했다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다. 아울러 그가 동경 축지소극장에서 신극을 배우거나 연구하고 귀국했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셋째, 그의 희곡작품이나 공연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총 11편이다. 그 가운데 희곡텍스트와 대본텍스트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구술이나 회고담으로 전해지는 공연텍스트는 5편이며, 문헌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4편이다.

넷째, 일본어로 창작한 희곡작품 《晩秋》는 동경제국대학교 동문들이 중심이 된 문학잡지 『赤門文學』(1942년 5, 6월)에 발표된다.

다섯째, 1946년 통영여중 학예회에서 공연된 기록이 있는 작품, 곧 희곡텍스트 《봄의 향연》과 대본텍스트 《불어라 봄바람》은 동일 작품으로 추론된다.

여섯째, 그의 작품 《애정무한》(4막)은 유치진 연출과 김일영 장치로 극단 현대극장에서 약초국민극장에 1945년 6월 6일 야간에, 《산비둘기》는 유치진 연출로 극단 현대극장에서 약초국민극장에 1945년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공연된다.

아울러 《산비둘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작품으로 인하여 그가 ‘일본 총독부의 검열과 경찰의 소환을 피신했다는 것은 추측에 의한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작품은 당시 연극학적 상황에서 본다면 적어도 ‘검열’을 통과한 것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일곱째, 통영문화협회, 문인극회의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는 적어도 동경학생예술좌의 김용오, 허남실을 매개로 하여 유치진과의 연극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의 추론과 확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기적 정보와 연극 활동에 관한 문헌 자료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확인 가능한 문헌 자료, 특히 이미 발굴된 자료 《불어라 봄바람》은 학계에 공개되어야 한다.

주제어 : 박재성, 축지소극장, 희곡 ‘晩秋’, 잡지 ‘赤門文學’, ‘봄의 향연’,
‘불어라 봄바람’, ‘애정무한’, ‘산비둘기’

1. 문제의 제기

1994년과 1997년 박재성과 그의 공연작품 《비둘기》가 한국 근대 희곡사와 연극(공연)사에 처음으로, 이어서 1998년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일어체 창작 희곡 작품 《晩秋》도 소개된다. 2000년과 2004년 작품 《晩秋》가 번역되어 소개되지만, 그의 생애와 연극 활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¹⁾는 전무하다. 오히려 구술이나 회고를 중심으로 한 그의 생애에 관한 정보가 신문 기사화 되고, 칼럼 형식으로 언급되어 재생산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이에 본고는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 그의 전기적 정보²⁾, 특히

-
- 1) 민병욱 편저, 『한국 희곡사 연표』, 국학자료원, 1994, 450, 710, 802쪽.
 _____, 『한국 연극공연사 연표』, 국학자료원, 1997, 75쪽
 민병욱 외, 『일제 강점기 재일 한국인의 문학활동과 문학의식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243~245쪽.
 민병욱, 『일제 강점기 재일 한국인의 연극운동』, 연극 인간사, 2000, 52~54, 126~159쪽
 이재명 외 엮음, 『해방 전(1940~1945) 일문희곡집』, 평민사, 2004, 39~94쪽.
- 2) 그의 전기적 정보를 처음 제시한 것은 『통영시지(하)』이며, 지금까지 회고를 중심으로 신문에 소개된 기사와 칼럼 등은 다음과 같다. 다음 글을 본고에서 인용하고자 할 때는 편의상 인용의 부분에 예컨대(①)와 같이 괄호 속에 원 번호를 넣어서 표시하고자 한다.
- ① 한하균, 「제11편 제3장 연극」, 『통영시지(하)』, 통영시사편찬위원회, 1999, 301~324쪽.
 ② 한하균, 「오동동 야화 - 내가 만든 연극인들 (2)」, 『경남도민일보』, 2000.6.14.
 ③ 한하균, 「오동동 야화 2- 내가 만난 연극인들·정진업」, 『경남도민일보』, 2001.2.7.
 ④ 한하균, 「오동동 야화 35- 내가 만난 연극인들」, 『경남도민일보』 2001.2.14
 ⑤ 한하균, 「오동동 야화 36-내가 만난 연극인들 정진업」, 『경남도민일보』, 2001.2.28.

연극 활동에 관한 정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전기적 정보의 쟁점

1) 전기적 정보의 출발점

그의 생애에 관한 전기적 정보의 출발점(①)은 다음과 같다.

- 박재성 (朴在成: 1916~1948)
- 통영에서 출생
- 동래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 졸업
- 일본대학 예술과 수료
- 1942년 일본 동경제국대학의 교지 적문(赤門)에 희곡 「만추(晩秋)」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데뷔.

-
- ⑥ 김봉희 기자, 「‘오동동 야화’ 연재 끝낸 지운 한하균 선생」, 『경남도민일보』, 2001.3.7.
 - ⑦ 이시우 기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통영 봉래극장(중)」, 『경남도민일보』, 2006.1.17.
 - ⑧ 김영화 기자, 「통영은 한국 신극의 태동지, 한국연극 100년 새지평 열어」, 『한산신문』, 2008.6.23.
 - ⑨ 김정화 기자, 「경남연극의 기초를 세운 선구자」, 『서부경남신문』, 2009.2.10.
 - ⑩ 김일룡, 「향토사 산책 5, 통영문화협회(統營文化協會) ①」, 『한산신문』, 2011. 5.28.
 - ⑪ 김일룡, 「향토사 산책 5, 통영문화협회(統營文化協會) ②」, 『한산신문』, 2011. 6.11.
 - ⑫ 홍경찬 기자, 「33세로 요절한 비운의 극작가 박재성」, 『한려투데이』, 2013. 4. 15.
 - ⑬ 홍경찬 기자, 「박재성 극작가-정윤주 작곡가의 1946년 5월 악보 발견」, 『한려투데이』, 2013.6.10.
 - ⑭ 주 평, 「주 평의 수필산책- 내가 만난 국어 선생」, 『한산신문』, 2014.4.11
 - ⑮ 박태일, 「[인문학 칼럼] 요절 극작가 박재성과 일본인 아내 방자」, 『국제신문』, 2016.08.31.

- 1945년 극단 현대(現代)에 자작 「산비둘기」 공연 - 초연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 경찰의 소환을 받고 함흥으로 피신했다가 해방과 함께 귀향
- 1947년 「연극부락」 창립 동인으로 활약하면서 「여성참정권 시비문제」, 「호풍(胡風)」, 「두뇌수술(일명: 망향)」, 「눈 속에 햇빛은 비치더라」 등을 발표
- 1948년 부인(일본인)을 대동하여 귀국하다 현해탄에서 난파되어 요절³⁾

인용에서 그의 전기적 정보를 출생과 생몰연대, 귀국 전 학생시절-유학생활동과 연극 활동, 귀국 후 연극 활동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전기적 정보를 근거로 하여 향토사학자, 지역연극인, 경남과 통영지역 신문, 무엇보다도 구술자의 기억의 혼란에 의해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수정되거나 덧붙여지면서 정보의 혼란과 왜곡에 이른다.

2) 출생과 생몰연대의 문제

극작가 박재성의 전기적 정보에 관한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한자 성명이 朴在成이며, 고향이 통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가

3) 글쓴이 한하균은 '경남연극의 기초를 세운 선구자'로 불리는 연극인으로서 그는 경남연극의 회고담 「오동동 야화」를 2000년 6월 7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경남도민일보』에 총 36회 연재를 한다. 아울러 그의 연출가 연보에 따르면 1956년 박재성 작 《산비둘기》를 연출했다고 적혀 있다. 그의 이러한 회고담은 경남연극, 특히 통영과 마산(현재 창원)의 연극사에 관한 증언으로 널리 알려진다.

그럼에도 마산연극사의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그를 비롯한 연극인들의 구술은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기록은 이를 입증할 1차 사료가 존재하지 않아 논외로' 제외된다. 박재성 뿐만 아니라 경남연극사와 마찬가지로 통영연극사의 정리에 가장 긴요한 1차 사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두천 기자, 「한하균 선생에게서 마산연극사를 듣다」, 『경남도민일보』, 2011.9.26.

김정화 기자, 「경남연극의 기초를 세운 선구자」, 『서부경남신문』, 2009.2.10.

33세에 죽었다는 사실에는 일치를 이루지만 생몰연대에 관해서는 1916년에서 1948년까지(①, ⑪)에서 시작하여 1914년에서 1947년까지(⑬)를 거쳐서 1915년에서 1947년까지⁴⁾로 변화하면서 서술된다. 이 가운데 그의 33년간의 생애에서 본다면, 생몰 연도는 1916년에서 1948년까지와 1915년에서 1947년까지 가운데 하나이다.

1916년과 1948년이라는 생몰연도는 『통영시사(하)』에서 시작되어 향토사학자(⑪)에 해서 그대로 되풀이된다.

반면 1915년과 1947년이라는 생몰연도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시된 것이다.

그때 일본에 있던 아내 요시코가 1946년 가을에서 1947년 여름까지 남편 박재성에게 보낸 편지이다. 요시코의 남편 박재성(1915~1947)은 통영 출신 극작가로 그에게 늘 따라 붙는 수식어는 ‘불운의 천재 극작가’, ‘비운의 요절 극작가’이다.⁵⁾

1946년 해방으로 헤어져서 일본에서 살고 있던 일본인 아내가 ‘1946년 가을에서 1947년 여름까지 남편 박재성’에게 보낸 ‘127통의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⁶⁾에서 ‘1947년 여름에 보낸 편지’가 ‘마지막 편지’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1946년에서 1947년간의 편지가 그의 죽음 연도를 1947년으로 보는 근거로 보기에다 어렵다.

곧 일본인 아내 요시코의 ‘127통의 편지’(1946년 10월 1일에서 1947년 8월 25일까지) 가운데 8편의 편지(1946.12.30., 1947.2.6., 1947.2.8., 1947.2.

4) 김봉희, 『극작가 박재성의 아내 요시코의 편지글에 대한 소고』, 『한국지역문학연구』 제7집, 한국지역문학학회, 2016.2, 7쪽.

5) 인용에서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그에게 늘 따라 붙는 수식어 불운의 천재 극작가, 비운의 요절 극작가’라는 표현은 ‘요절한 비운의 극작가’(⑫)라는 신문기사 외에 어느 글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

김봉희, 위의 논문, 7~8쪽.

6) 김봉희, 위의 논문, 6쪽.

11., 1947.2.12., 1947.2.22., 1947.3.26., 1947.5.27.)를 부분 이용하고 그 가운데 4편만을 번역자도 없이 번역하여 수록한 것을 근거로 사망연도를 1947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1947년 8월 25일을 일본인 아내의 ‘마지막 편지’ 날짜로 근거하여 사망연도를 1947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단순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편지에서 확인되는 것은 일본인 아내 요시코(寺尾芳子)의 편지가 1946년 10월 1일에서 1947년 8월 25일까지의 기록이라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제외하고는 ‘1947년 여름 박재성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밀선을 타고 동경에 있는 요시코를 찾아갔다. 하지만 둘은 다시 밀선을 타고 통영으로 돌아오던 중 현해탄에서 풍랑을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⁷⁾는 풍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 풍문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통영출신 아동극작가 주평의 추억담이다.

내 중학시절에 만났던 국어선생들과 나와 특별한 사연들을 되돌아본다.

(...) 내가 3학년이든 해방되던 해에 김춘수 선생이 우리 국어선생으로 오셨다.

(...) 4학년 말에 김 선생님이 마산중학교로 전근한 후, 후임으로 오신

7) 그가 밀선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가고 오다가 현해탄에서 풍랑을 맞아 죽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당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밀선은 대부분 밀무역의 운반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 밀선은 부산, 인천, 목포, 제주도를 근거지로 하여 일본 本州, 남부 九州, 동경으로 오간다, 밀항자는 대부분 일본에서 귀환하는 조선인이며, 조선에서 일본으로 밀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밀항자의 수는 1946년 7월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과 일본을 오가면서 현해탄에서 일어난 사고는 조선과 일본에서 보도된 것은 없지만 통영과 마산을 오가는 정기여객선이 해안경비선과 부딪쳐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는 것”은 보도됨

『조선인 밀항 감소 - 맥 사령부서 발표』, 『경향신문』, 1947.7.13.

『거제도의 대참사』, 『동아일보』, 1947.8.22.

선생은 도쿄대학의 교지인 『아까몬(붉은 문)』에 <칸무리(王冠)>란 희곡을 신을 정도의 실력 있는 극작가인 박재성 선생님이었다.

(…) 그런데 그 박 선생님이 5학년 여름방학이 끝났는데도 학교에 나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에 두고 온 일본인 처(부인)을 데려 오기 위해 밀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밀선으로 돌아오다가 대마도 앞바다에서 큰 파도에 덮여 돌아가셨다는 것이다.⁽¹⁴⁾

(…) 김춘수 선생님이 마산고등학교로 전근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 국어 선생님 또한 유명한 시인 고 청마 유치환 선생님이었다.

(…) 그리고 유치환 선생님이 거제도에 있는 모 중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겨가신 후임으로 오신 분이 극작가 박재성 선생님이었다. 그분은 그 유명한 동경제대 문학부를 중퇴하신 분으로서, 동대학 교지인 『아카몬(赤門)』이란 잡지에 <간수리(冠)>란 희곡을 발표할 정도의 실력 있는 희곡작가였던 것이다.

(…) 그리고 내 중학교 6학년의 마지막 국어 선생님은 김용기란 선생님이었다.⁸⁾

‘동경제대 문학부 중퇴, 도쿄대학 교지, 『아까몬(붉은 문)』, <칸무리(王冠)>, <간수리(冠)>’에 관한 해석을 논외로 하고 인용에서 제시한 연도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929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난 글쓴이 주평(본명: 정웅)⁹⁾이 1944년 통영 근처 관포어업조합이사로 발령이 난 부친을 따라서 1944년 통영중학교 2학년으로 전학을 간다. 이를 기준으로 그를 가르쳤던 통영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주 평, 『국어선생 ①』, 『막은 오르고 막은 내리고』, 보성사, 1992, 146~149쪽.

9) 주 평, 『동심의 포로』, 『미국에 산다』, 예총, 1969, 45~48쪽.

연도	주 평의 학년	국어 선생	이동 사항
1945년	3학년	김춘수 ¹⁰⁾	
1946년	4학년	김춘수	마산고등학교로의 전근
		유치환	중학교 교장으로의 전근
		박재성	부임
1947년	5학년	박재성	밀선으로의 귀국 도중 죽음
1948년	6학년	김용기	

도식에서와 같이 박재성은 그가 1946년 통영중학교 4학년 때 국어선생으로 부임하여 1947년 5학년 때 죽었다는 것이다. 비록 소문이긴 하지만 1948년 김용기가 통영중학교 국어 선생으로 부임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박재성이 1947년에 죽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인다. 박재성의 죽음에 관한 소문을 소개한 것은 그의 학생인 주평이 처음이기 때문이며, 그 내용이 그의 생몰연도를 다룬 글에서는 모두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재성의 생몰 연도는 1915년과 1947년으로 볼 수 있다.

3) 학창 생활과 연극 활동

생몰연대와 마찬가지로 그의 출신 배경, 학창 생활, 연극 활동에 관한 전기적 정보도 확정하기 어렵다.

첫째, 통영 출신이라는 문제에서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 것은 그의 출신 배경이다. 곧 그의 출신에 관해서는 양반의 자제(⑤)와 가난한 집안(3남 2녀 가운데의 차남, ⑮)이라는 주장만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출신 고등학교의 문제는 그가 동래고보를 졸업한 것(①)으로 알려졌으나 졸업생 명부에 그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것(⑮)으로 제시되고

10) 주 평의 회고담 가운데 김춘수에 관련된 기억에는 오류가 있다. 김춘수는 1946년 통영중학교 국어교사로 부임하여 1948년까지 근무하다가 1949년 마산중학교 교사로 전임하여 1951년까지 근무한다.

근대문학100년 연구총서 편찬위원회,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 2』, 소명출판, 2008, 117~123쪽.

있다.

셋째, 일본 유학의 문제는 ‘일본대학 예술과’(①)를 수료했다는 것이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동경 호세이(법정)대학 불문과’(⑫)라고 보는 것으로 다시 제기된다. 이후 그가 ‘동경 호세이(법정)대학 불문과’로 유학했다는 주장이 널리 퍼진다. 이 주장들은 뿐만 아니라 유학연도 및 유학기간과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1942년 당시 동경 법정대학 불문과 재학’(⑬)하고 있다는 것과 ‘30년대 중반 입학’(⑮)으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대학 예술과 수료’라는 주장은 그가 통영중학교 교사시절에 가르쳤던 학생 한하균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경남 연극의 기초를 세운 한하균 선생. 한하균 선생은 통영중학교 4학년 때 국어를 가르치던 김춘수 선생이 연출한 작품 <조국>에서 조연출을 맡으면서 처음 연극과 인연을 맺었다.(⑨)

그리고 선생님(=국어 선생님 김춘수)과 나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 (...) 4학년 때, 우리 중학교 제 1회 연극제인 <조국>에 나의 호리 낭창한 모매를 감안해서 인지 어머니 역을 맡겨 주셨다.(⑭)

인용에서 보면 한하균(1932년생, ⑨)과 주평(1929년생, ⑭)은 통영출신으로서 통영중학교 동기생으로서 연출가와 극작가이다. 주평과 함께 한하균은 ‘1955년부터 1959년까지 통영연극을 주도한 연극인’¹¹⁾으로서 경남지역연극에 관한 회고담을 가장 많이 쓰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하균이 그의 ‘일본대학 예술과 수료’(①)에 관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가 ‘호세이(법정)대학 불문과’에 유학했다는 주장도 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신문기사(⑫)에 갑자기 난 이래 널리 퍼진다

11) 『순수연극의 지킴이 통영연극 - 한하균 (연출가)』, 『경남신문』, 2008.6.19.

(15)12).

그의 유학에 관한 이러한 주장을 일본대학과 법정대학의 동문 명단에 서도 확인할 수 없다.¹³⁾ 다만 회고담의 구술자와 박재성 간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가 일본대학교 예술학부로 유학했다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동경 축지소극장에서 신극을 배우거나 연구하고 돌아왔다’이라는 발언(7,8)¹⁴⁾으로까지 이어진다.

넷째, 창작 희곡 《晩秋》의 문제는 그가 유학 시절 『赤門文學』(1942년 5, 6월)¹⁵⁾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작품명을 ‘아키(가을)’(4)라고 하거나 발표 연도를 ‘일본 유학시절’(11), ‘1942년 5월’(12), ‘1942년’(15)으로 보는 것도 오류이다.

아울러 그 발표지 『赤門文學』이 동경제국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문학잡지¹⁶⁾임에도 ‘동경대학 교지’(1, 4, 14)로, ‘문학동인지’(12)로, ‘동경제국대학교 문예지’(15), 심지어는 ‘동경대학교의 교지인 『적문(迹文)문학』’¹⁷⁾으로 오독하고 있다.

그의 유학생활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 희곡 작품 《晩秋》에 관련

12) 15는 김봉희(앞의 논문)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13) <https://cse.google.com/cse?cx=https://ko.wikipedia.org/w/index.php?search>

14) 김영화 기자(2008.6.23.)와 대담한 통영연극예술축제집행위원장 장착석의 발언은 관련 문헌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早稻田大學演劇博物館 編, 『演劇百科大事典』(全 6卷), 平凡社, 1990.

倉林誠一郎, 『新劇年代記-戰中編』, 白水社, 1969.

管井幸雄, 『築地小劇場』, 未來社, 1974.

15) 그 발표 연도와 작품은 2000년에 처음 소개되는 것과 동시에 번역되고, 2004년에도 번역된다.

민병욱, 『일제 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연극운동』, 연극 인간사, 2000, 52~54, 126~159쪽.

이재명 외 엮음, 『해방전(1940~1945) 일문 희곡집』, 평민사, 2004, 39~94쪽.

16) 잡지는 동경제국대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1941년 12월(소화 16년)에 ‘1권 1호’로 시작하여 1944년 2월(소화 19년) ‘4권2호’까지 발행된다. 잡지의 성격은 동경제국대학교의 교지와 문예지 및 문학동인지가 아니라 일반 문학잡지이다.

17) 김봉희. 앞의 논문, 7쪽.

하여 ‘赤文 文學에 ‘만추(晩秋) 4편을 출품해’(⑫), ‘일본 대학 문학동인지에 동인들의 권유로 집필한 희곡 ‘만추’ 4편’(⑬)이라는 오독을 불러일으키는 왜곡이 이루어진다.

희곡 작품 《晩秋》의 발표 이외에 그의 유학생활에서 알려진 것은 일본여자 요시코와의 연애와 결혼뿐이다.

다섯째, 통영문화협회와 문인극회의 참여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를 중심으로 그의 창작 작품과 공연작품을 구별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다. 창작 작품으로 확인된 《晩秋》를 제외하고 그의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는 텍스트는 《가을》(①,⑥), 《눈 속에 햇빛은 비치더라》(①), 《두뇌수술(일명: 망향)》(①), 《봄의 향연》(⑭), 《불어라 봄바람》(⑫), 《산비둘기》(①,⑥,⑨,⑪,⑫,⑭), 《여성참정권시비》(①,⑥), 《왕관》(⑫,⑮), 《호풍》(①,②,⑥,⑫)이다.

《만추》의 오류인 《가을》, 진우촌의 《두뇌수술(일명: 망향)》(1945년)¹⁸⁾, 《왕관》¹⁹⁾을 제외하면, 그의 작품들 가운데 희곡텍스트와 대본텍스트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구술이나 회고담으로 전해지는 공연텍스트는 5편이다. 그 5편 가운데 문헌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봄의 향연》, 《불어라 봄바람》, 《산비둘기》이다.

《봄의 향연》과 《불어라 봄바람》은 동일 작품으로 추론된다.

정윤주 작곡가의 아들 정대은씨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1946.5 봄에’라고 표지가 적힌 당시 공연된 가극 ‘불어라 봄바

18) 김윤식, 「답답할 만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연극인 진우촌(秦雨村)」, 『기호일보』, 2007.6.10.

19) 《가을》은 《晩秋》의 오독이다. 《王冠》은 1943년 『赤門文學』에 수록된 것으로 제시되지만 그 잡지의 목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 범위를 넓혀서 소화 18년(1943년)에서 소화 19년(1944년)까지, 제 3권 제 1호에서 제 4권 제 2호까지의 목차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國立國會圖書館所藏昭和前期文芸・同人雜誌集成(索引 卷)』, 아이어얼디어어企畫, 1998.

람' '제 1경 박재성 작사, 정윤주 곡' 음악 악보와 가극 '불어라 봄바람' 중에서 '갑순이의 탄식'(박재성 작가, 정윤주 작곡) 악보가 발견됐다고 전해왔다. (…)

‘불어라 봄바람’(통영여중 1946년 학예회) 극에서는 주인공 갑순이 역으로 통영에 생존하는 염경자(…)씨가 무대에 올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13)

4학년 말에 (…) 오신 선생은 (…) 극작가인 박재성 선생님이었다.

(…) 어느 날 선생님이 유리에게 자습을 시켜 놓고는 (…)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 통영여중의 학예회극본 ‘봄의 향연’을 쓰시다가 그 중 한 장면을 우리에게 읽어주시고는 (…)(14)

인용에서와 같이 ‘봄의 향연’은 통영여중의 학예회극본이며, ‘불어라 봄바람’은 같은 해 통영여중 학예회에서 공연된 가극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목의 유사성까지도 감안한다면 전자는 희곡텍스트이며, 후자는 그 텍스트를 무대실연하기 위한 대본텍스트로, 곧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애환과 가족애의 고통’(13)이라고 한다.

그의 작품 《산비둘기》에 관해서 연출가 유치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1945년 8월 들어서 나는 고향 후배가 써 온 희곡 《산비둘기》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1945년 8월 13일부터 우리가 한 달여 연습한 《산비둘기》를 공연하기 시작했다. 시국이 뒤숭숭한데도 관객이 꽤 몰려들었다.(…) 공연이 3일째 접어들던 날 (8월 15일) 드디어 역사적인 민족 해방의 날을 맞은 것이다.²⁰⁾

인용에서와 같이 《산비둘기》 공연(1945년 8월 13일에서 15일까지)과 관련하여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의 작품으로 공연한다는 선전 기록

20) 유치진, 『자서전』, 『동량 유치진 전집 9』, 서울예대출판부, 1993, 165~166쪽.

이 있는 작품은 《비둘기》와 《애정무한》이다.

《비둘기》는 ‘극단 현대극장 공연, 작품-《비둘기》(박재성 작, 유치진 연출, 극장-약초극장, 8월 13일 공연)’으로 《애정무한》은 ‘현대극장, 약초홍행주식회사 직속극단, 6월 6일 야간부터, 박재성 작 愛情無限 4막, 유치진 연출, 김일영 장치, 약초국민극장’²¹⁾으로 선전된다. 그 공연 일자로 본다면 《산비둘기》와 《비둘기》를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지만, 《산비둘기》과 《愛情無限》은 동일한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향토의 「문인극회」 멤버들은 극단 이름을 「연극부락(演劇部落)」으로 개칭하고 단원도 보강했다. (...) 첫 번째 공연에 (...) 이어 박재성 작 「산비둘기」(일명 無情無限(4막)를 김용기 연출로 공연 (...) (①-305)

인용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세 작품들-《산비둘기》, 《愛情無限》, 《無情無限》 간의 동일성 여부이다. 《無情無限》을 《愛情無限》의 오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본을 확인할 수 없는 한 공연 날짜의 차이에서 본다면 《산비둘기》와 《愛情無限》을 같은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산비둘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작품으로 인하여 그가 ‘일본 경찰의 소환을 받고 함흥으로 피신했다.’(①)에서 ‘일본 총독부의 검열에 걸려 강원도로 피신했던 적’(⑫)이 있다는 것으로, ‘왜경의 소환을 받자 강원도로 몸을 피했다’(⑮)는 것으로 왜곡, 확산된다.

당시 연극학적 상황에서 본다면 ‘1945년 8월 13일 극단 현대극장’의 《산비둘기》 공연으로 그가 피신을 했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극단 현대극장²²⁾은 친일 연극의 주도적 단체이며, 그 대표 겸 연출가 유치진

21) 《愛情無限》은 『매일신보』(昭和 25년 6월 4일 2면 광고)에 한 차례 광고로 선전되고 극단 현대극장의 유치진 연출로 국민약초극장에서 6월 6일 한 차례 공연된다.

『매일신보』, 1945.6.4., 1945.6.5.

민병욱 편저, 『한국희곡사연표』, 국학자료원, 1994, 450, 711, 803쪽.

_____, 『한국연극공연사연표』, 국학자료원, 1997, 113쪽.

은 조선연극협회(1940년 12월 창립)의 이사이면서 조선연극문화협회(1942년 7월 결성)의 상임평의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극단 현대극장에서 유치진의 연출로 공연한 작품 《산비둘기》는 총독부의 「연예, 흥행에 관한 비상 조치」(1924년 4월 1일)과 「조선흥행 등 취체규칙」(1944년 4월 8일)의 규제와 검열을 통과한 작품이다. ‘총독부의 검열’과 ‘왜경의 소환’에 있었음에도 공연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의 작품 내용이 ‘검열’을 통과한 것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의 학창 시절과 연극 활동에 관한 전기적 정보에서 확인된 것은 희곡작품 《晩秋》(『赤門文學』, 1942년 5월과 6월) 발표, 작품 《愛情無限》(4막)과 《산비둘기》의 1945년 공연(극단 현대극장, 유치진 연출, 약초국민극장), 동일 작품 《봄의 향연》과 《불어라 봄바람》의 1946년 공연뿐이다.

4) 참여 단체와 회원 정보

해방 전 작품 공연이 유치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그가 참여한 단체 및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극작가로서 참여한 단체인 통영문화협회, 문인극회이다.

통영문화협회²³⁾는 1945년 9월 유치환(시인, 회장), 윤이상(작곡가, 간

22) 극단 현대극장의 설립을 유치진이 ‘연극신체제’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국민연극’을 선택한 것은 당시 연극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시 친일연극을 주도한 극단으로 보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덕기, 「일제 말 극단 현대극장의 국민연극 실천과 신극(新劇)의 딜레마」, 『어문학』 제107집, 한국어문학회, 2010.3, 295~322쪽.

이상우, 「1940년대 현대극장과 친일극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38집, 한민족어문학회, 2001, 361~392쪽.

23) 박철규, 「제2편 제12장 신국가건설기의 통영」, 『통영시사(상)』, 통영시사편찬위원회, 1999, 429쪽.

『중보』, 1945.10.3.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http://www.daarts.or.kr/handle/11080/16799>)

사), 김춘수(시인, 총무), 김상옥(시인), 김용기(연극연출가), 박재성(극작가), 전혁립(화가), 정명운(음악가)을 발기인으로 하여 김용오, 김정오, 배종혁, 서성탄, 옥치정, 정윤주, 최상한, 허창언 등으로 창립된다. 협회는 교도부, 문예부, 연극부, 음악부, 미술부를 그 산하에 두고 문화 계몽 운동을, 국문강습회를 통한 한글계몽운동을 전개한다.

이어 1945년 12월 협회의 연극부는 소인극단 ‘문인극회’를 만들면서 그 회원을 그대로 이어받고 서성탄, 황하수, 송두영을 새로 추가한다.²⁴⁾ 그 극회 회원들 가운데 연극(공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극작가 박재성을 비롯하여 김용기, 서성탄, 허창언 뿐이다.

아울러 문인극회 회원들의 연극(공연)에 관한 전기적 정보에서 본다면 일본 유학생은 김용기, 김용오이며, 그 회원이 아닌 사람은 허남실이다.

김용기²⁵⁾의 연극 활동에 전기적 정보는 동경학생예술좌 출신이라고 하다가 다시 동경예술학원 출신(③, ⑥)으로 주장한다.

먼저, 김용기가 동경학생예술좌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동경학생예술좌²⁶⁾의 조직과 그 구성원은 문예부—김정호(金正好), 김진수(金鎭壽), 송기영(宋基永), 주영섭(朱永涉), 황순원(黃順元), 연기부—김영수(金永壽), 김동혁(金東赫), 김정호(金正好), 김진순(金鎭順), 이갑순(李甲順), 이용준(李容俊), 이휘창(李彙昌), 박은식(朴殷植), 송관섭(宋寬燮), 최춘선(崔春善), 의장부—김정환(金貞桓), 김명기, 장오평(張五平), 서무부—이진주(李鎭周), 주영섭(朱永涉)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그

24) ②와 ⑦에서는 문인극회 회원으로 박재성, 김용기, 김상옥, 김춘수, 허창언을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②는 문인극회가 통영문화협회 회원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면서 송두영과 황하수를 새 회원으로 추가하고 있다.

25) 그의 성명에 관해서 한글성명 ‘김용기’(③)만으로, 한글한자병용 가운데 한자성명을 ‘金容寄(⑪)’로, ‘金容伎(⑫)’로 서술하고 있다. 그의 한자 성명이 金容寄인지 金容伎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26)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저서에서 상술한 바 있다.

민병욱, 『일제 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연극운동』, 연극과 인간사, 2000, 47~51쪽.

의 이름은 동경학생예술좌에서 발간한 잡지 『幕』(1936년 12월부터 1939년 6월까지의 통권 3호)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어서, 김용기가 동경예술학원 출신이라는 점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동경예술학원’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진 학교는 없다. 이와 관련이 있는 명칭으로는 일본예술원, 동경예술대학, 일본대학 예술과 정도이다. 일본예술원이 1907년 미술검토위원회, 1919년 제국 예술아카데미, 1947년 현재 명칭이 변경된 점에서, 동경예술대학은 동경미술학교(1876년 설립)와 동경음악학교(1878년 설립)를 통합하여 1949년 5월에 설립된 점²⁷⁾에서 동경예술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만일 ‘동경예술학원 출신’을 ‘일본대학 예술과 출신’의 오기나 혹은 기억의 오류로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일본대학 예술과 재학생(혹은 졸업생)이 동경학생예술좌를 결성한 주축이며, 당시 조선유학생들 가운데 연극 관련 전공자들, 예컨대 곽종원, 김동원, 마해송, 이서구, 이서향, 이해랑, 홍해성 등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⁸⁾ 김용기는 일본 예술대학 예술과 뿐만 아니라 함께 동경 학생예술좌의 주축 세력을 이루고 있는 法政大學의 동문 명단²⁹⁾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에 김용기가 동경학생예술좌와 동경예술학원 출신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용오(金容午)는 그 생몰 연대가 ‘1913~1949년’(⑪)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그 한자성명이 동경학생좌의 기관지 『막』에서 확인된다. 그의 인

27) http://www.geijutuin.go.jp/index.php?action_About_Index=1

<http://www.geidai.ac.jp/outline/profile>

28) 동경학생예술좌에 참가한 일본대학 예술과 출신으로는 김동혁(金東赫), 김영수(金永壽), 김영화(金永華), 이진순(李眞淳), 이해랑(李海浪), 임호권(林虎權), 한적선(韓笛仙) 등이 있다. 그 동문 명단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http://www.nihon-u.ac.jp/alumni/>

<https://ko.wikipedia.org/w/index.php?search>

29) 동경학생예술좌에 참가한 법정대학 출신으로는, 마완영(馬完英), 박동근(朴東根), 주영섭(朱永涉) 등이 있다. 그 동문 명단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https://www.hosei.ac.jp/sotsugyosei/index.html>

<https://ko.wikipedia.org/w/index.php?search>

물 묘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金容午(法大) 제군이 있으나 그들은 모다 춘향전 공연을 통해서 입좌한 만큼 역사도 짧을 뿐만 아니라³⁰⁾

《춘향전》 공연은 1937년 6월 22,23일 축지소극장에서 열린 동경학생예술좌의 제 2회 공연으로서 유치진 작, 주영섭 연출로 이루어진다. 곧 그는 法政大를 다니면서 1937년 6월 동경학생예술좌원이 되어 문예부원³¹⁾으로 참여한다. 이후 연극 활동에 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 통영문화협회, 문인극회의 회원으로 참여한다.

허석(남실)은 통영문화협회와 문인극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통영연극사에서 유치진, 박재성과 관련되는 위치에 있다. 허남실의 위치³²⁾는 통영연극사에 있어서 유치진을 출발점으로 하여 뒤를 잇는 박재성 다음에 있다.

아울러 허남실 관해서는 ‘국립극장 연출부장’을 지냈던 정보(⑥)만을 거론하고 있다. 그 정보를 유치진은 초대 국립극장장으로서 ‘극단 조직에 뒤이어 인적 조직을 다지기 위해서 무대 감독에 허석(許碩, 본명 南實) 등을 앉혔다.’³³⁾로 밝히기 전에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의 고향 친구 허남실(許南實)이 얻어 사는 집에 얹혀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 유학생들(김동원, 마완영, 박동근, 이진순, 이해랑, 주영섭

30) 임호권, 『좌원인물묘사실』, 『막』 제2호, 1938, 45쪽.

31) 『학생예술좌 스태프』, 『막』 제2호, 54쪽.

32) 이에 관하여 한하균(⑥)은 ‘통영 연극은 동량 유치진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축지소극장 출신인 서성탄·허석(남실)씨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박재성씨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3) 무대감독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그는 국립극장 개관 기념으로 극단 실험에서 유치진 작품의 원술량을 공연할 때(1950년 4월 30일)에는 연출을 한다.

국립중앙극장 엮음, 『국립극장 50년사』, 태학사, 2000, 884쪽.

유치진, 『자서전』, 『동량 유치진 전집 9』, 서울예대출판부, 1993, 204쪽.

등 연극학도들-인용자) 자주 찾아오는 바람에 허남실 집은 유학생들의 연극 아지트가 되었다. 허남실은 사실 연극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뿐더러 관심조차 두지 않는 트럭 운전사였다. 물론 그도 현재의 곤궁한 처지 때문에 그렇지 그 나름대로 꿈은 갖고 있었다. 결국 자동차 운전수였던 허남실도 우리들의 등쌀로 인해서 곧 연극인으로 바뀌어 갔다. 연출가가 된 것이다. 일본 유학생들은 나를 정신적 지주로 삼고 연극단체 동경 학생예술좌(6월)를 출범시켰다.³⁴⁾

인용에서와 같이 허남실³⁵⁾은 동경학생예술좌의 창립과 해산까지 활동하다가 극예술연구회(1931년 7월 창립~1938년 3월 해산), 극연좌(1938년 4월 창립~1939년 5월 해산), 극단 현대극장(1941년 창립), 조선연극협회(1940년 12월 창립~1942년 7월 해산), 극단 현대극장(1941년 3월 창립~1945년 8월 해산)을 거쳐서 해방 이후에도 유치진과 함께 연극 활동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박재성 극작가는 유치진 선생이 희곡을 적극 권유해 극작가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기록’(⑫)을 확인할 수 없지만 허남실이 그와 유치진 사이에 매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더욱더 커 보인다.

통영문화협회, 문인극회의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박재성은 적어도 동경학생예술좌의 김용오, 허남실을 매개로 하여 유치진과의 연극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4) 유치진, 앞의 책, 129쪽.

35) 허남실은 동경 학생예술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는 ‘인연기픈 동무들’(『막』 제 1호, 1936.12)로, ‘동경조선영화협회(소화12년 7월 창립)의 기획부’ 부원과 ‘제 2회 공연 유치진 각색 춘향전’의 ‘무대감독’ 및 학생예술좌의 스태프 기획부(제 2호, 1938.3)로, 창립 제 1회 공연에서는 ‘주영섭 작 연출의 연기감독’, ‘창립 5주년 기념공연의 연출’, ‘제1기 귀향 좌원 기획부 허남실(일본대학)’(제 3호, 1939.6)로 나온다. 특히 임호권의 『좌원인물묘사실』(제 2호, 43쪽)에서는 일곱 번째로 묘사되는 바, ‘고릴라, 좌원에서 제일 연장자 아니 어느 점으로 보든지 모든 것이 선배다.(...) 그는 항상 좌원들을 격려하며 지도하느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 왔다.’ 등으로 묘사된다. 아울러 그는 국립극장에서도 초대극장장 유치진에 의해서 무대감독이 된 이후에도 극장의 개관 기념으로 극단 신헌에서 공연한 유치진 작 《원술랑》의 연출가를 맡기도 한다.

3. 결론

본고는 구술이나 회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극작가 박재성의 생애와 연극 활동에 관한 전기적 정보를 살펴보았다. 이에 본고는 그의 전기적 정보, 특히 연극 활동에 관한 정보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그의 생몰 연도는 통영중학교 국어교사 시절 제자들의 회고담에 근거하여 1915년과 1947년으로 본다.

둘째, 일본대학과 법정대학의 동문 명단에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회고담의 구술자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가 일본대학교 예술과로 유학했다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다. 아울러 그가 동경 축지소극장에서 신극을 배우거나 연구하고 귀국했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셋째, 그의 희곡작품이나 공연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총 11편이다. 그 가운데 희곡텍스트와 대본텍스트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구술이나 회고담으로 전해지는 공연텍스트는 5편이며, 문헌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4편이다.

넷째, 일본어로 창작한 희곡작품 《晩秋》는 동경제국대학교 동문들이 중심이 된 문학잡지 『赤門文學』(1942년 5, 6월)에 발표된다.

다섯째, 1946년 통영여중 학예회에서 공연된 기록이 있는 작품, 곧 희곡텍스트 《봄의 향연》과 대본텍스트 《불어라 봄바람》은 동일 작품으로 추론된다.

여섯째, 그의 작품 《애정무한》(4막)은 유치진 연출과 김일영 장치로 극단 현대극장에서 약초국민극장에 1945년 6월 6일 야간에, 《산비둘기》는 유치진 연출로 극단 현대극장에서 약초국민극장에 1945년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공연된다.

아울러 《산비둘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작품으로 인하여 그가 ‘일본 총독부의 검열과 경찰의 소환을 피신했다는 것은 추측에

의한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작품은 당시 연극학적 상황에서 본다면 적어도 ‘검열’을 통과한 것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일곱째, 통영문화협회, 문인극회의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는 적어도 동경학생예술좌의 김용오, 허남실을 매개로 하여 유치진과의 연극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의 추론과 확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기적 정보와 연극 활동에 관한 문헌 자료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확인 가능한 문헌 자료, 특히 이미 발굴된 자료 《불어라 봄바람》은 학계에 공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극장 엮음, 『국립극장 50년사』, 태학사, 2000.
- 근대문학100년 연구총서 편찬위원회,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 2』, 소명출판사, 2008.
- 민병욱 외, 『일제 강점기 재일 한국인의 문학 활동과 문학의식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 민병욱 편저, 『한국연극공연사연표』, 국학자료원, 1997.
- _____, 『한국희곡사연표』, 국학자료원, 1994.
- 민병욱, 『일제 강점기 재일 한국인의 연극운동』, 연극 인간사, 2000.
- 주 평, 『막은 오르고 막은 내리고』, 보성사, 1992.
- 주 평, 『미국에 산다』, 예총, 1969.
- 早稻田大學演劇博物館 編, 『演劇百科大事典』(全 6卷), 平凡社, 1990.
- 倉林誠一郎, 『新劇年代記-戰中編』, 白水社, 1969.
- 『國立國會圖書館所藏昭和前期文芸・同人雜誌集成(索引 卷)』, アイアー ルディー企畫, 1998.
- 管井幸雄, 『築地小劇場』, 未來社, 1974.
- 「거제도의 대참사」, 『동아일보』, 1947.8.22.
- 「순수연극의 지킴이 통영연극 - 한하균 (연출가)」, 『경남신문』, 2008.6.19.
- 「조선인 밀항 감소 - 맥 사령부서 발표」, 『경향신문』, 1947.7.13.
- 「학생예술좌 스태프」, 『막』(제2호), 54쪽.
- 김두천 기자, 「한하균 선생에게서 마산연극사를 듣다」, 『경남도민일보』, 2011.9.26.
- 김봉희 기자, 「‘오동동 야화’ 연재 끝낸 지운 한하균 선생」, 『경남도민일보』, 2001.3.7.

- 김봉희, 「극작가 박재성의 아내 요시코의 편지글에 대한 소고」, 『한국지역문학연구』 제7집, 한국지역문학회, 2016.2, 3~12쪽.
- 김영화 기자, 「통영은 한국 신극의 태동지, 한국연극 100년 새지평 열어」, 『한산신문』, 2008.6.23.
- 김윤식, 「답답할 만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연극인 진우촌(秦雨村)」, 『기호일보』, 2007.6.10.
- 김일룡, 「향토사 산책 5, 통영문화협회(統營文化協會) ①」, 『한신신문』, 2011.5.28.
- 김일룡, 「향토사 산책 5, 통영문화협회(統營文化協會) ②」, 『한신신문』, 2011.6.11.
- 김정화 기자, 「경남연극의 기초를 세운 선구자」, 『서부경남신문』, 2009.2.10.
- 김정화 기자, 「경남연극의 기초를 세운 선구자」, 『서부경남신문』, 2009.2.10.
- 박철규, 「제2편 제12장 신국가건설기의 통영」, 『통영시사(상)』, 통영시사편찬위원회, 1999, 401~435쪽.
- 박태일, 「[인문학 칼럼] 요절 극작가 박재성과 일본인 아내 방자」, 『국제신문』, 2016.08.31.
- 이덕기, 「일제 말 극단 현대극장의 국민연극 실천과 신극(新劇)의 딜레마」, 『어문학』 제107집, 2010.3, 295~322쪽.
- 이시우 기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통영 봉래극장(중)」, 『경남도민일보』, 2006.1.17.
- 임호권, 「좌원인물묘사실」, 『막』 제2호, 1938, 42~46쪽.
- 주 평, 「주 평의 수필산책- 내가 만난 국어 선생」, 『한산신문』, 2014.4.11.
- 한하균, 「오동동 야화 2- 내가 만난 연극인들 · 정진업」, 『경남도민일보』, 2001.2.7.

- _____, 「오동동 야화 - 내가 만든 연극인들 (2)」, 『경남도민일보』, 2000.6.14.
- _____, 「오동동 야화 35 - 내가 만난 연극인들」, 『경남도민일보』 2001.2.14
- _____, 「오동동 야화 36 - 내가 만난 연극인들 정진엽」, 『경남도민일보』, 2001.2.28.
- _____, 「제11편 제3장 연극」, 『통영시지(하)』, 통영시사편찬위원회, 1999, 301~324쪽.
- 홍경찬 기자, 「33세로 요절한 비운의 극작가 박재성」, 『한려투데이』, 2013.4.15.
- _____, 「박재성 극작가 · 정운주 작곡가의 1946년 5월 악보 발견」, 『한려투데이』, 2013.6.10.

<Abstract>

The Problem of Biographic Information and Misreading of Playwright Park Jae Sung

Min, Byung-Wook*

This paper examines the biographic information about the life and theater activities of the playwright Park Jae Sung, which is centered on dictation and retrospectives. Therefore, this paper summarizes the problems of his biographic information, especially about theater activities, and concludes.

1) His longevity is seen in 1915 and 1947 based on the remembrance of his disciples when he was a Korean language teacher at Tongyeong Middle School.

2) Although it is not confirmed on the list of alumni of Japanese universities and legal colleges, it is more reliable that he studied in the art department of Nihon University, in relation to the narrator of the recollections. In addition, it is a factual distortion that he learned or studied the new drama in the Tsukijishōgekijō(築地小劇場).

3) There are eleven pieces of his plays and performances. Among them, the play text and script text are not confirmed, but there are five performance texts delivered in oral and recollections.

4) The drama “ManChu”(晩秋) created in Japanese is published in the literary magazine “Akamon Literature” (May, June, 1942), centered on the alumni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5) In 1946, a work with a record in Tongyeong Girls' Middle School, the drama text "Bom-ui Hyang Yeon"(Spring Feast) and the script text "Bul Eola Bom Balam"("Blowing in the springtime") is deduced as the same work.

6) His work "Ae Jeong Mu Han"(愛情無限) (Act 4) was directed by Yoo Chi Jin and Kim Il Young at the Yag Cho Gug Min Geug Jang the theater of Hyeon Dae Geug Jang on June 6, 1945. It will be performed from August 13 to 15. Moreover, even though he can not confirm the contents of "San Bi Dul Gi", it is merely a distortion by speculation that he escaped the censorship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and the recall of the police.

It can not be reckoned that the work has passed at least 'censorship' if it is seen from the theatrical phenomenon at that time.

7) In terms of relations with the members of the Tongyeong Cultural Association and Mun In Geug Hoe, he seems to have made a theatrical contact with Yoo Chi Jin through at least the Tokyo Ghag Saeng Ye Sul Jwa's Kim Yong Oh and Huh Nam Sil.

Despite some inferences and confirmations of these facts, the remaining issues should be found in the literature on his graphic information and theater activities. Identifiable literature data, especially the already-excavated material "Bul Eola Bom Balam"("Blowing in the springtime") should be made available to academia.

Key Words : Park Jae Sung, The Tsukijishōgekijō, The drama "ManChu", magazine "Akamon Literature", Bom-ui Hyang Yeon(Spring Feast), Bul Eola Bom Balam ("Blowing in the springtime"), Ae Jeong Mu Han

극작가 박재성의 전기적 정보와 오독의 문제 389

■ 논문접수 : 2017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17년 11월 21일

■ 게재확정 : 2017년 12월 18일

